

연구논문

『위현전』 연구

이후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연구교수, 고전산문 전공
alfn19@naver.com

- I. 머리말
 - II. 서지 사항 및 경개
 - III. 공간 구성의 특징
 - IV. 윤리적 가치의 혼란과 극복의 서사
 - V. 맺음말
-

I. 머리말

『위현전』은 안남국의 세자 위현의 영웅적 일대기를 그린 고전소설이다. 2종의 이본이 현전하고 있으나 모두 낙질이다. 이로 인해 간단한 줄거리 소개 및 해제¹ 외에는 이렇다 할 선행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위현전』은 공간 구성이 매우 특징적이며 주제 의식이 명확한 작품이다. 또한 현전하는 이본만으로도 작품의 의미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그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위현전』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서지 정보와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그리고 능허도와 저승이라는 두 공간의 독특한 속성을 도출한 뒤 주제 의식을 고찰하겠다. 이를 통해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위현전』의 면모를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II. 서지 사항 및 경개

현재 전하고 있는 『위현전』의 이본은 총 2종으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舊 박순호본, 이하 ‘국한박본’)과 충남대학교 소장본(舊 사재동본, 이하 ‘충남대본’)이 있다.² 국한박본은 국문 필사본이며 1권 1책, 45장 89면으로 이루어진 낙질본이다. 능허도에서 은신하던 위현이 갈관에게 복수하기 위해 안남으로 가려고 하는 대목까지 나타난다. 여기서 상권이 종료되는데, 하권은 필사가 중

1 박순임·김창원, 『장서각 수집 국문고전소설·시가 및 실기류 해제』(서울: 민속원, 2008), 192~196쪽.

2 조희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1종의 이본이 더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필자가 조사한 결과 충남대본의 복사본임을 확인하였다.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40: 월세계~유씨효행록』(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134~141쪽.

단되었거나 필사되었으나 일실된 것으로 보인다. 표제는 “위현전 상 魏賢傳 上”이며 권수제는 “위현전 상”이다. 이로 보아 본래 상하 2책으로 나누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지에 “辛丑 親臚”이라 하여 신축년에 직접 필사하였음을 나타내고, 표지 다음의 공격지에 “신축 스월 십오일 위현전 상 魏賢傳 上”이라고 써서 신축년 4월 15일에 필사하였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상권이 끝난 뒤 마지막 장에 또다시 필사기가 나타난다.

신축 육월 십팔일 등출우용화정스 본이 황잡한 글시와 파괴한 붓스로 장호 산창의 일기 심열하야 그리저리 등출호기로 오즈 낙서 만할 뜻호옵 보시난 이가 문리 되난티로 놀너보시압 참괴””

공격지와 마지막 장의 필사기를 종합해 보면 신축년 4월 15일에 필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6월 18일에 용화정사라는 곳에서 필사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³

충남대본도 국문으로 필사된 낙질본인데 1권 1책, 97장 19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현이 군대를 꾸려 갈관의 군대와 1차 전투를 마치는 대목까지 존재한다. 표제는 “위현전 권지상”이고 권수제는 “위현전 권지일”이다. 본래 2권 2책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한박본과 마찬가지로 1권을 마치지 못한 채 필사가 중단되어 있다. 표지에는 “계스 덩월 일시 서호노라”라는 필사기가 있는데, 표지의 뒷면에도 자세한 필사기가 나타난다.

3 국립한글박물관은 『위현전』의 해제를 제시하면서 필사 시기를 ‘19~20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841년 신축년과 1901년 신축년이 가장 유력하다.



그림1-국한박본 표지(좌), 내지 1a(우)



그림2-충남대본 표지(좌), 내지 1a(우)

癸巳元月⁴十三日爲始二月念七日終 三月二日成冊 글시가 시종이 갖지 못하고 말
이 만이 짜진 듯하니 보시는 니덜은 놀너보시고 취절을 잡지 마르시옵소서.

계사년 1월 13일에 필사를 시작하여 2월 27일에 마쳤으며, 3월 2일에 성
책(成冊)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한박본과 충남대본은 고유명사와 같은 글자

4 “癸巳元月”과 나란히 “乙巳二月”이 세로로 적혀 있는데 “乙巳二月”은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계사년과 을사년은 12년의 차이가 나며 표지에 “계수 덩월”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癸巳元月”이 맞을 것이다.

상의 차이는 있지만 서사상의 큰 차이는 없다. 저승의 지옥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묘사 순서와 몇몇 지옥의 내용 설정이 다른 점이 그나마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⁵ 따라서 두 이본은 같은 계열에서 파생되었으나 각각 다른 대본을 대상으로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필사체만 놓고 보았을 때 국한박본이 충남대본보다 더 선명하며 가독성이 좋다. 또 충남대본은 오기와 수정한 글자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충남대본의 분량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서사 전개가 매끄럽고 자세하다. 따라서 충남대본을 선본(善本)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겠다. 다음으로 『위현전』의 경계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다.⁶

1. 명나라 때 안남국의 국왕 위진은 당나라 위징의 8대손이다. 명 태조를 도와 창업한 공으로 안남왕에 봉해져 40년 동안 재위하였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국왕의 덕을 칭송하였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정씨]가 북두추성(北斗樞星)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한다.
2. 왕비가 해산할 때 태을진군이 나타나 아이의 전생, 10년의 액운, 2명의 배필 등을 이야기한 뒤 사라진다. 왕비가 아들을 낳자 이름을 ‘현’이라고 짓는다. 위현은 자라면서 지혜와 덕행이 뛰어났다.
3. 대장군 갈관이 반역할 뜻을 품고 국정을 농단한다. 위진이 81세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자 8세가 된 위현을 세자로 봉한다. 위현이 갈관을 자주 질책하니 갈관이 동생, 아들, 조카, 사위의 군대를 몰아 궁궐에 침입하여 옥새를 빼앗고 즉위한다. 갈관이 위진을 폐하여 계양후로 삼은 후 사람을 보내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계양에 도착한 위진이 노병(老病)으로 죽고 계양 백성들이 왕의 예로써 장례를 지내 준다.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6 서사가 더 풍부한 충남대본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고유명사나 특정 단어가 국한박본과 다를 경우 ‘[]’ 부호로 표기하였다.

4. 갈관이 사람을 시켜 왕비와 위현이 갇혀 있는 별궁에 불을 지른다. 이때 위진이 왕비의 꿈에 나타나 큰 재앙이 다가옴을 예언한다. 별궁에 불이 붙었을 때, 태을진군이 나타나 불길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부적 네 장을 주고 사라진다. 이때 안남국의 신하였던 만대와 여택이 왕비와 위현을 구출하여 깊은 은신시킨다.
5. 갈관이 국호를 대연국이라고 고치고 연왕으로 등극한다. 큰아들 갈희를 세자로 책봉하고 찬탈을 도운 이들에게 벼슬을 내린다.
6. 위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왕비와 위현이 전해 듣는다. 두 사람이 만대와 여택을 따라 수도를 빠져나와 해마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북해 용자(龍子)를 만난다. 용자의 배를 타고 가던 중, 봉래산 잔치에 가던 여러 선관들을 만난다. 위현이 선과(仙果) 두 개를 먹고 전생사를 기억해 낸다. 선관들이 위현에게 장신갑, 용천검, 보신주, 비룡장 등을 주고 국가를 회복하는 데 쓰라고 한다.
7. 다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태을진군을 만난다. 태을진군이 8년 뒤 갈관을 돕는 안민도[안밀도]의 세 장수인 장득, 용골안[용고한], 마철골을 퇴치하는 법, 서역 천축사의 통천도사와 그의 제자인 동해 용자 용창을 회유하는 법, 부친 위진이 염라왕이 되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8. 수십 일 뒤에 북해 용자가 위현 일행을 능허도[능해도]라는 섬에 내려 주고 사라진다. 위현이 능허도의 회령궁에서 후토선이라는 노인을 만나 그곳에서 8년을 머물러야 함을 듣는다. 왕비는 위현과 8년 동안 이별하는 액운이 있어, 위진의 여동생이자 후토선의 부인인 후도부인[황토부인]과 함께 제왕도[황토섬]에 머문다.
9. 능허도 회령궁에 역대 명신들이 모이는 날에 능허법사[능해법사] 황석공을 위현의 스승으로 정한다. 이때 연석에 초대받지 못한 불의지신(不義之臣) 9인이 찾아오는데, 위징이 나서서 잘못을 낱알이 질책해 돌려보낸다. 모든 명신들이 돌아가고 황석공만 남는다.

10. 위현이 황석공에게 온갖 술법을 배운다. 16세가 되었을 때, 황석공에게 천황보살의 낙화와 염라왕의 벽력퇴를 얻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길을 떠난다. 위현이 황석공에게 받은 부적을 물속에 던져 남해 용동(龍童)을 나오게 한다. 용동의 배를 타고 천황보살에게 가서 낙화를 얻는다.
11. 지옥으로 가던 중 귀졸과 백호를 만나 위협을 받지만 위현이 낙화를 흔들어서 모두 물리친다. 이후 최판관을 만나 시왕전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고 염라왕이 된 부친 위진과 상봉한다. 며칠 뒤 위현이 위진에게 벽력퇴를 받는다. 그리고 시왕지옥(十王地獄)과 영광 세계를 두루 구경한다. 위현이 지옥을 나오자, 남해 용동이 다시 나타나 능허도로 데려다준다.
12. 위현이 17세가 되었을 때 남해 용왕이 찾아와 자신의 딸과의 혼인을 청한다. 황석공과 후토선의 주선으로 약혼한다. 한편, 액운을 없애는 기한을 다 채운 왕비가 후토부인과 함께 능허도로 돌아와 위현의 혼인을 준비한다.
13. 약속한 날짜가 되어 위현이 황석공, 만대, 여택과 함께 남해 용동의 배를 타고 용궁으로 들어간다. 용녀와 성대한 혼인식을 치르고 3일 뒤에 능허도로 돌아온다. 용녀가 왕비와 후토선 부부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위현이 18세가 되자 안남국으로 갈 준비를 한다. **[국한박본 종료]**
14. **[충남대본 74a]** 이때 천축국 천축사에 있는 통천도사가 온갖 술법이 뛰어났으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멸화선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통천도사가 동해 용자 용창을 제자로 삼아 신기한 재주를 가르친다. 용창은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용궁의 비도를 가지고 있었다. 통천도사가 천기(天機)를 읽고 안남왕을 돕기로 한다. 용창을 데리고 안남 대승산으로 나와 때를 기다린다.
15. 한편 남민국의 왕 서경진은 명 태조의 창업을 도운 공으로 왕이 되었고 위진과 매우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어느 날 남민왕이 죽은 위진이 나타나 복수해 달라고 하는 꿈을 꾸고 안남국에 사람을 보내 갈관의 찬탈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큰 군대를 일으켜 안남국으로 쳐들어간다.

16. 갈관은 남민왕이 보낸 패문(牌文)을 읽고, 즉시 신하를 보내 안민도의 명장 3인을 초빙한다. 일전에 안민도 만학봉에 갑자기 불덩이 세 개가 떨어지면 서 장특, 용골안, 마철골이라는 세 명의 장수가 나타났는데, 모두 화덕진군의 제자였다. 백성들을 노략질하며 괴롭혔으나 제어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세 장수가 갈관의 초빙에 응해 안남국으로 와서 전장으로 나간다.
17. 서릉에서 남민왕의 군대와 세 장수의 군대가 격돌하지만 세 장수 중 마철골이 압도적인 무력을 뽐낸다. 남민왕이 근심하던 중 죽은 위진이 다시 나타나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위진이 세 장수와 대적하지 말고 위현을 기다리라고 말한다.
18. 한편 위현은 태을진군에게 출전하라는 계시를 듣는다. 왕비, 용녀, 황석공, 만대, 여택과 함께 남해 용동의 배를 타고 안남국으로 온다. 노백산에서 전임 예부상서 정준을 비롯해 갈관을 따르지 않고 은거해 있던 안남국의 전조(前朝) 신하들을 만난다. 정준 등이 위현을 왕으로 삼고 군대를 이루어 수도로 향한다.
19. 위현의 군대가 먼저 서평관을 함락하고 갈관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던 지방관 다섯 명과 결탁한다. 갈관이 이 소식을 듣고 용골안을 서평관으로 보낸다. 용골안이 위현의 군대가 매우 강성함을 보고 갈관에게 장특과 마철골도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황석공이 장특, 용골안, 마철골을 대적할 묘책을 미리 준비하여 병사들에게 지시한다.
20. 가장 먼저 마철골이 출마하여 위현의 장수들과 대적하지만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날 밤에 위현의 진영에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대장 깃발이 부러진다. **[충남대본 종료]**

이후의 내용은 작품에 예언된 바를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위현 군대

가 안민도의 세 장수를 퇴치함, 위현 군대와 남민왕 군대가 연합함, 통천도사와 용창을 포섭함, 갈관의 군대를 격파하고 갈관을 징치함, 위현이 안남왕으로 즉위함' 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태몽에 따라 위현이 전생에 향안전 시녀였던 여성과 결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⁷

Ⅲ. 공간 구성의 특징

1. 능허도: 여러 공간으로의 연결망

『위현전』은 공간 구성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공간이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에 작품의 해제에서 “시공의 한계를 초월하여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⁸ 사실 초월 공간과 현실 공간의 연결은 대부분의 고전소설에 나타난다. 그러나 『위현전』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공간이 ‘능허도’를 중심으로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다.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은 ‘천상, 지상, 저승, 수궁, 능허도’ 총 5개이다. 천상은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공간으로, 지상, 저승, 수궁을 관장하는 공간이다.

7 충남대본과 국한박본 모두 위현이 香案前 시녀와 용녀, 두 명과 혼인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두 이본이 동일하게 향안전 시녀를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여성이 위현의 첫째 부인이 되고 안남의 왕비가 되어야 할 듯하다. 그런데 용왕 부부가 용녀를 國母로 언급하고 있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충남대본, 73b: 현을 뒤흔여 용왕 니외 같오던 “니의 여식은 공묘[모]지상이라 만세 안락하라”/국한박본, 43b~44a: 용왕 니외 왈 “너식은 당”이 국모 될 것시니 엇지 한 달의 한 번식 보리요 일 년의 한 번식이나 맛나 보게 허라). 띄어쓰기, 문장부호, 밑줄, 강조, 수정한 글자: [], 빠진 글자: <, 인명 주: ()는 필자. 이하 동일.

8 박순임·김창원, 앞의 책(2008), 195쪽.

위현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태을진군⁹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현도 전생이 북두추성(北斗樞星)이고 옥황상제가 위진 부부에게 접지한 인물이므로 본래 천상 소속이라 할 수 있다. 또 위현과 혼인할 것이 예견되는 여성도 전생에 향안전 시녀였으므로 천상 소속이다. 결국 천상은 절대적 지위를 가진 옥황상제가 지상, 저승, 수궁을 통제하는 공간이자 주인공들의 전생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지상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명나라 영락 병술년 안남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상의 인간들, 특히 남녀 주인공은 천상에서 정해 놓은 운명대로 살아간다.

저승은 염라왕이 다스리는 공간인데, 위현의 부친이자 안남의 1대 왕인 위진이 죽은 뒤 왕이 되어 다스리는 장소이다. 여기서 위진이 염라왕이 된 것은 옥황상제의 명령에 의한 것¹⁰이므로 저승 역시 지상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통제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궁은 남해 용왕이 다스리는 공간이자 위현과 혼인하는 용녀가 성장한 곳이다. 그런데 북해 용자, 동해 용자도 작품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 서사화되지는 않지만 다른 구역의 수궁이 더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 북해 용자가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위현 일행을 배에 태워 구출하는 부분¹¹이

9 『위현전』에 등장하는 태을진군과 봉래산 잔치에 참석하는 선관들은 신선 공간의 인물들로 추측되는데, 본거지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태을진군이 여러 번 옥황상제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신선 공간이 천상 공간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신선 공간은 따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10 충남대본, 30a~32b: 노선(태을진군) 왈 “…… 그뒤의 부왕은 지금 옥황의 명을 밋조와 열닌[넌]되왕이 도되[여]시니……”/46b~47a: 규벽의 안준 선관이 “말을 듯고 일어나 세조(위현)의 손을 잡고 가로되 “…… 즉금 위진이 나라를 일코 계양의 가 죽으니 상데 명호스 염왕을 하이시고……”.

11 충남대본, 23a~23b: 동주 등이 누리며 세조(위현)에게 절하여 왈 “소조 등은 북히 직헌 농조올넌이 어제 옥제의 교지를 밋조와 세조를 구호오려 왓스오니 복원 세조는 일형과 급피 비

나타나므로 수궁도 천상의 명령을 따르는 공간이 된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능허도’는 현실 공간에 사는 인간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비현실적 공간이다.¹² 안남의 세자였던 위현은 갈관에게 나라를 빼앗긴 부친이 병으로 죽은 상황에서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능허도에 도착한다. 능허도는 남해 근처의 깊은 산속에 위치하며 둘레가 300리에 이르는 섬으로, 보배가 많고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

노인(후토선) 왈 “나는 이 섬 죽힌 후토지신시오 니 섬 지명은 능허[허]도라 안
모 되도 바인 되 업고 다만 일속 일초식 만고영웅이 모와 흥망성쇠를 의논하느니 이리
무로 이 집 일홈이 회령궁이라 하며…….”¹³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능허도는 묶인 데 없고 소속된 곳이 없는 곳이다. 즉 상위 공간의 통제를 받지 않은 독립적인 공간이며 지상, 저승, 수궁과 달리 천상의 명령을 받지 않고 후토선이라는 인물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장소인 것이다.¹⁴ 그리고 능허도 안에 있는 큰 전각(殿閣)인 회령궁¹⁵은 한 달에 한 번씩 역대 영웅들의 영령이 모여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논하는 집회지이다. 이곳에

의 오르소서”.

12 충남대본, 35b: 혼 노인(후토선)이…… 가로되 “이고슨 세인이 아지 못홀 뿐 아이라 인간 길이 업서 통섭지 못하거늘 그디 등의 의관을 보니 진세 스름이여늘 엇지 이고되 왓노뇨”.

13 충남대본, 37a.

14 다른 곳에서 후토선은 옥황상제가 영웅들에게 능허도 회령궁에서 모이도록 명했다고 말한다(충남대본, 47b~48b: 후토선이 차례로 니로되 “…… 이리무로 상제 특별이 명하스 일월 일초식 피와 세상수를 살피고 제왕득실을 총찰하라 하시 그 명감을 웃지 다 측양하리오”). 이는 능허도는 천상이 지배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능허도에 모이는 영웅들은 상제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들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외 작품 어디에도 능허도가 천상의 지배하에 있다는 서술이 나오지 않는다.

15 회령궁은 ‘영령들이 모이는 궁전’이라는 뜻에서 ‘會靈宮’일 것이다.

서 위현은 후토선의 보호를 받으며 10살부터 17살까지 총 8년을 머문다. 그리고 역대 영웅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그때 황석공¹⁶의 제자가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위현이 스승을 만나 능력을 배양하는 것만으로 갈관에게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석공은 위현이 16세가 되자 천상 천황보살의 낙화와 저승 염라왕의 벽력퇴를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낙화와 벽력퇴는 지상의 정기로 만들어진 보배로, 위현이 앞으로 치를 전쟁에 꼭 필요한 무기이다.¹⁷ 이에 위현은 아직 액운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허도를 떠나게 된다.

노인(후토선) 왈 “…… 이곳의서 턴상을 가즈면 수로 만 니를 가면 은흔[하]수의 당하고 세상을 가즈면 수로〃 백만 니를 가면 남히변의 당하고 스[지]부의 가즈하면 십만 니를 가면 염나왕 게신 덕을 가고 그덕 등은 이고세 팔 년 천정이 잇기로 하늘이 지시하오서 이곳의 왓스니 조금도 의심치 말나.”¹⁸

능허도는 천상, 저승,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회령궁에서 수로(水路)로 만 리, 십만 리, 백만 리를 각각 가면 천상, 저승, 지상이다. 천상이 가장 가깝고 지상이 가장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궁으로도 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능허도는 남해 근처에 위치

16 黃石公(?~?)은 중국 秦나라 말기 은자이자 병법가이다. 회령궁에 모인 많은 영웅들 중 황석공이 위현의 스승이 된 것은 張良(?~BC 186)에게 『太公兵法』이라는 병법서를 전해 주었던 인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17 낙화는 흔들면 물을 소멸시킨다(충남대본, 55b: “스는 법은 어렵지 안니하니 물을 당하거든 흔들면 주연 소멸하느니 만일 세상의 노가 쓰다가 천축국 통천도수의 멸화산을 만나면 용납지 못하리라”). 벽력퇴는 공중에 던지면 벼락을 쳐 사악한 것을 모두 죽인다(충남대본, 59a~59b: 한 몽치를 주며 왈 “이는 벽력퇴니 급흔 썩을 당하거든 공동의 더지면 벽력이 되어 만물의 영악함을 제살하느니 삼가 부리되 만일 멸화선을 맞으면 조화를 농납지 못하리라”).

18 충남대본, 37a~37b.

한 섬이다. 그렇기에 남해 용왕이 능허도에 쉽게 찾아오고 남해 용왕의 수하인 용동이 나타나 위현을 천황보살에게 태워다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회령궁에서 50리 떨어진 해변에서 남해 용궁으로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현이 남해 용녀와 혼인하기 위해 용궁으로 들어갈 때 용동의 배를 타고 눈을 감았다 뜨니 용궁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정확한 거리를 알 수는 없다.¹⁹

그렇다면 지상으로의 이동은 어떠할까? 회령궁에서 꼬박 8년을 머문 위현은 액운이 소멸한 18세가 되자마자 안남으로 나가려 한다. 이때도 역시 회령궁에서 50리 떨어진 해변으로 가서 남해 용동의 배를 탄다. 그리고 10여 일 만에 안남국의 경계에 도착한다.²⁰ 앞서 회령궁에서 수로로 백만 리를 가면 지상이라고 했는데, 날짜로는 10일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의 비선(飛船)을 타고도 10일이나 걸릴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이 지상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능허도는 천상, 저승, 남해 용궁, 안남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4개의 다른 공간으로 가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옥황상제가 본인이 머무는 천상이 아닌 능허도로 굳이 위현을 보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능허도는 위현이 액운을 소멸하는 곳이자 위협자로부터 은신하는 곳이며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정도에 그친다면 다른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은신처와 다를 바가 없다. 능허도는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이 독보적이다. 그리고 이 점은 공간 이동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연결된다.

위현은 천상에 가서 낙화를 얻었고 저승에 가서는 부친에게 벽력퇴를 얻

19 충남대본, 72a: 용동 왈 “혼형은 일시에 눈을 감으라” 한디 눈을 감고 있더니 안니요 눈을 쓰라 하걸날 눈을 쓰니 일월이 명랑호여 세상과 갓튼지라.

20 충남대본, 85a~85b: 허변의 ㄷ ㄹ라 보니 농동이 비선얼 디령호여거날 세즈 일형이 등선호며 농동다려 무른디 “이제 몇날이면 고국의 도라가리요” 농지 답왈 “슈로난 슈십 일이면 육노의 가련이와 육지난 니슈을 몰나이다” 세즈 벉을 직촉호여 어디로 가는 줄 모루더니 십여 일만의 어택의 날이라 하니 일형이 등육호며 농동을 향호여 치스호고 고국을 향호여 가더니.

었으며 남해 용궁에 가서는 용녀와 혼인하였다. 그리고 결론을 유추해 보면 안남에 가서 복수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결국 능허도는 여러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신물(神物) 획득, 죽은 부친 상봉, 신이한 여성과의 혼인, 복수 등을 이루게 해 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곧 주인공이 간절히 소망하던 것을 들어 주고 결핍을 채워 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성된 장소라는 것이다.

고전소설에는 주인공이 몸을 숨기고 액운을 소멸하는 미지의 공간이 자주 나타난다. 대체로 천상,仙境(仙境), 수궁과 같은 초월적 공간으로 형상화되는데, 이 장소들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자 잠시 만들어 둔 곳인 경우가 많다. 곧 현실 공간과는 다른 시공간적 법칙이 적용되는 비현실 공간이라 할 수 있다.²¹ 그렇기에 주인공이 일단 이곳에 들어가면 정해진 기한이 지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한다. 길면 10년까지도 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그 장소를 다스리는 인물은 바깥으로의 출입이 매우 자유롭다. 그렇다면 고전소설 속의 비현실적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곳임에도 주인공에게만 제한적으로 개폐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위현전』의 비현실 공간인 능허도는 액운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주인공에게 천상, 저승, 수궁으로의 출입을 허용한다. 다른 공간과 철저하게 단절시키던 여타 작품들과는 달리, 주인공에게 미지의 공간을 체험해 보게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²² 능허도를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설정한 것도 주인공이 항해하여 드나들 수 있음을 표현했다

21 조재현, 「古典小說에 나타나는 幻想界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23~45쪽.

22 물론 위현이 능허도를 나가 다른 공간을 탐색하는 것은 천명(天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현전』처럼 5개의 공간이 한꺼번에 서사화되고 주인공이 이 모든 공간을 체험하는 영웅소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액운을 소멸하는 공간이 이처럼 개방적인 작품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고 할 수 있다.

2. 저승: 지옥과 극락이 공존하는 곳

고전소설에는 지옥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소수 존재한다.²³ 『위현전』도 이에 해당하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10개 안팎의 지옥이 설정되고, 각 지옥의 형벌과 죄목을 일일이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후 공간인 극락을 4개로 세분화한 뒤 지옥의 바로 옆에 위치시켜 저승 안에 공존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위현은 능허도에서 저승으로 건너가 염라왕이 된 부친 위진과 재회한다. 그리고 벽력퇴를 받은 뒤 능허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위진이 ‘시왕지옥(十王地獄)과 영광세계(榮光世界)’²⁴를 구경하고 가라며 만류한다. 여기서 시왕지옥은 위진이 다스리는 지옥을 가리키며, 영광세계는 지옥의 바로 옆에 있는 극락을 말한다. 위현은 위진의 부하인 “녹스”의 안내를 받아 지옥과 극락을 구석구석 구경한다. 이 부분이 충남대본은 약 14면(59b~66a), 국한박본은 약 9면(34a~38a)에 걸쳐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지옥에 대해 살펴보겠다.

23 지옥이 등장하는 고전소설로 『남가록』, 『남염부주지』, 『당태종전』, 『목시룡전』, 『삼사형입 황천기』, 『설공찬전』, 『설홍전』, 『왕랑반혼전』, 『원회록』, 『이계룡전』, 『저승전』, 『황백호전』 등이 있다. (조재현은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저승계를 지옥과 명사계로 나누어 다뤘는데, 지옥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남염부주지』, 『목시룡전』, 『설공찬전』, 『설홍전』, 『이계룡전』을 들었다. [조재현, 「古典小說에 나타나는 저승계 研究: 閻羅大王의 地獄과 后土夫人의 冥司界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5-2(2007).] 그리고 김기종은 불교가사, 야담,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고전소설은 『당태종전』, 『목시룡전』, 『설홍전』, 『이계룡전』, 『저승전』을 다루었다. [김기종, 「조선후기 문학작품의 지옥 형상화와 그 성격」, 『동양고전연구』 66(2017).] 이 중에서 『당태종전』, 『목시룡전』, 『설홍전』, 『이계룡전』, 『저승전』에는 여러 개의 지옥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상 『위현전』과 일치하는 작품은 없다.

24 충남대본과 국한박본 모두 ‘십왕지옥과 세계영광’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다.

충남대본은 11개, 국한박본은 9개의 지옥을 묘사하고 있다. 시왕지옥이라 했으므로 총 10개의 지옥이어야 하는데, 두 이본 모두 오류가 있는 셈이다. <표1>을 보면 8개의 지옥은 두 이본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충남대본에는 3개, 국한박본에는 1개의 독자적인 지옥이 존재한다. 회색으로 음영 처리한 2번과 3번 지옥은 충남대본에만 나타나고 국한박본에는 없다. 그리고 9번 지옥의 경우 두 이본의 형벌과 죄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1-충남대본과 국한박본의 지옥 비교

충남대본			국한박본		
순서	형벌	죄목[해당 인물]	순서	형벌	죄목[해당 인물]
1	쇠칼을 씌우고 숯불 위에 달궈진 구리 다리를 건너게 함	간통한 남녀(남자의 본처를 다치게 하거나 죽음)	○지옥 1		
2	톱으로 두 팔과 두 다리를 썰어 포를 뜸	근친상간한 남녀, 모함한 남녀	X		
3	알몸에 바늘을 박은 뒤 불에 달군 쇠집게로 빼냄	늙은 남편을 박대한 여자, 외도한 여자	X		
4	돌로 만든 맷돌에 넣고 갈	부모를 박대한 남녀(어머니를 모해하여 죽음)	○지옥 2		
5	소가죽을 씌워서 철편으로 때리며 발을 갈게 함	곡식을 시주받아 사리사욕을 채운 승려, 남을 속여 재물을 챙긴 무녀	○지옥 3		
6	천만 년 동안 감금해 둠	역대 간신들: 조고, 석현, 가충, 장역지, 이임보 등	○지옥 4 : 조고, 석현, 가충, 장역지, 양국충 , 이임보 등		
7	방망이로 몸을 두들겨 늘어나게 했다가 줄어들게 함	억매(抑賣)하여 남의 것을 탈취한 자	○지옥 5		
8	칼을 씌워 철편으로 두드림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 형제·친척과 불화한 자, 임금에게 불충한 자, 충신을 해롭게 한 자, 백성에게 포학을 부려 재물을 탈취한 자	○지옥 6		

충남대본			국한박본		
순서	형벌	죄목[해당 인물]	순서	형벌	죄목[해당 인물]
9	나무에 묶어 두고 큰 톱으로 몸을 반토막 냄	전실(前室)의 딸을 모함하여 죽인 여자, 사촌과 간통한 여자, 남편을 죽인 여자	9	기름이 끓는 큰 가마에 알몸으로 넣고 끓임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고 민간의 부녀자를 겁탈하며 남을 음해한 관리
10	독사가 온몸의 피를 빨아 먹게 함	임금을 죽이고 찬역한 자들 : 왕망, 조조, 손권, 부견, 왕세충 등	○지옥 7 : 왕망, 조조, 손권, 부견, 왕세충, <u>후경, 동탁</u> 등		
11	깊은 연못에 알몸으로 들어 가게 함	남자를 미혹하고 남자의 아내를 모함해 죽인 여자, 시어머니를 구박한 여자, 친척과 불화한 여자, 외도한 남자의 아내를 박대한 여자 : 말희, 달기, <u>포사</u> , 조비연, <u>촉천무후, 위후</u> , 양귀비 등	○지옥 8 : 말희, 달기, 조비연, 양귀비		

*주: 밑줄 친 인물은 충남대본 혹은 국한박본에 나오지 않는 인물을 표시한 것이다.

먼저 형벌 부분을 살펴보면 대체로 죄인의 신체에 끔찍하고 혹독한 물리적 접촉을 가한다. 그리고 형벌을 받은 죄인이 까무러치면 신수(神水)로 씻어내고 업풍(業風)을 쏘여 살려 낸 뒤 다시 반복한다. 형벌만큼이나 죄목도 다양한데, ‘간통, 근친상간, 강간, 모해, 사기, 강도, 불효, 불화, 질투, 박대, 불충, 찬역, 시해’ 등이다. 죄인의 형태는 남녀 불문이며, 일반 백성부터 고위 관리까지 다양한 신분과 승려나 무당 등 여러 직업이 뒤섞여 있다. 그리고 6, 10, 11번 지옥처럼 중국 역사 속 실존 인물의 이름이 죄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한편 각 지옥은 특별한 이름이 없이 모두 ‘한 곳’으로 표현되는데, 위현과 녹사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구경하는 것으로 보아 지옥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추측된다. 지옥의 외관에 대한 묘사도 1, 10번 지옥에만 간단히 나타난다. 1번 지옥의 경우 ‘사면이 검은 쇠로 둘러싸인 성’이라고 하고, 10번 지

옥은 ‘사면이 가시로 둘러싸여 있고 함정과 돌문이 있는 성’이라 한 것을 볼 때²⁵ 각각의 지옥은 문이 달린 성(城)의 형태로 이루어진 듯하다.

이처럼 『위현전』의 지옥은 이름이나 형상 묘사가 불충분하고 지옥 간의 죄목이 겹치기도 한다. 또 여러 불교 전적에 나타나는 지옥과 비교해 봤을 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²⁶ 10번 지옥만 살인, 강도, 반역 등을 저지른 죄인을 심판하는 독사지옥(毒蛇地獄)과 유사한 정도이다. 그리고 1번 지옥의 경우는 불교 전적이 아닌 역사 기록물을 떠올리게 한다. 형벌의 양상이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이 행했던 포락지형(炮烙之刑)²⁷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현전』 속 지옥의 형벌과 죄목은 작가가 습득한 지옥 관련 문헌 및 중국 역사 기록 등을 조합하여 재창조한 것으로 보인다.

표2-충남대본과 국한박본의 극락 비교

충남대본			국한박본		
순서	해택	공적[해당 인물]	순서	해택	공적[해당 인물]
1	금관(金冠)을 쓰고 조복(朝服)을 입음, 푸른 옷을 입은 동자들이 시위함, 한가롭게 즐기	충신들 : <u>고요, 소공, 광광, 제갈량, 문천상, 악비 등</u>	○극락1 (이름 언급 없음)		
2	윤건(綸巾)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음, 동자들이 시위함, 한가롭게 즐기	효자들	○극락2		

- 25 충남대본, 34a~34b: 한 고딕 가니 스면의 거문 쇠로 성을 찢코 거문 안기와 살기 춤천한디 이호하난 소리 창천허거날 문을 열고 보니/36a~36b: 또 한 고딕 가니 스면의 가시성을 찢코 그 안의 지함을 파코 돌노 문을 허야 다뎃거날 그 문을 열어보니.
- 26 박광현, 「한국 불교 전적에 수록된 지옥의 종류와 관화 개관」, 『불교미술사학』 36(2023), 172~180쪽. (불교 전적에 따라 지옥의 개수, 명칭, 형벌 등에 차이가 있다. 크게 4대 지옥, 6대 지옥, 8대 지옥, 9대 지옥, 16대 지옥, 18대 지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7 포락지형은 기름을 바른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 놓고 죄인에게 그 위를 맨발로 걸어 가게 하여 발이 미끄러져 떨어지면 그대로 타 죽게 하는 형벌이다.

충남대본			국한박본		
순서	해택	공적[해당 인물]	순서	해택	공적[해당 인물]
3	화관(花冠)을 쓰고 푸른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음, 일곱 가지 보배로 단장함, 많은 시녀들이 시위함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절개를 지킨 부인들	○극락3		
4	비단옷을 입은 남녀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자리를 나누어 앉아 즐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구제한 남자들,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의 본처를 섬기며 친척들을 잘 대접한 첩, 투기하지 않고 첩에게 너그럽게 대접하며 남편을 섬긴 본처	X		

한편 지옥을 다 살펴본 위현은 마지막으로 4개의 극락도 차례차례 살펴본다. 1~3번 극락은 두 이본이 동일한 순서로 같은 내용을 서술하지만 4번 극락은 충남대본에만 나타난다. 극락에서 누리는 영광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치장한 뒤 시중드는 사람들 속에서 한가롭게 노니는 것이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충신, 효자, 효녀, 열녀, 양처(良妻), 구휼자 등인데, 충남대본의 1번 극락의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처럼 중국 실존 인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4개의 극락 역시 지옥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전고를 찾기는 어렵다. 1번 극락의 경우만 자세한 외관 묘사가 나타나는데, 맑게 갠 하늘이 펼쳐지고 고운 풀과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풍기며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져 있다. 그리고 난새·봉황·공작·앵무새·물총새가 짝을 지어 날아다니며 종소리와 북소리가 가득하다.²⁸ 새들의 존재와 음악 소리 정도만 놓고 보면 『아미타경(阿彌陀經)』에서 묘사하는 극락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리고 녹사가

28 충남대본, 64b: 한 곳을 가니 청천벽지며 기화요초는 유〃청〃허며 청송녹죽을 울〃충〃허고 난봉공작이며 잉무비취난 쌍〃이 날어들고 서로 부루지〃고 질기느니라 과연 종고지성이 반공의 주옥한디.

극락을 ‘저곳’이라고 지칭하고 마지막 지옥에서 곧바로 첫 번째 극락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보아 지옥과 극락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승 안에 지옥과 극락이 함께 존재한다는 발상인데, 다른 작품들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이다. 또한 극락 역시 지옥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당 부분을 새롭게 창작한 결과물로 보인다.

IV. 윤리적 가치의 혼란과 극복의 서사

『위현전』의 해제에 의하면 이 작품은 “영웅을 동경하는 신화적 발상과 유교적 윤리의식이 결합된 소산물”²⁹이다. 사실 대부분의 고전소설에 유교적 윤리의식이 나타나는데 『위현전』은 유독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작가는 작품의 배경 설정부터 회령궁 모임, 지옥과 극락 체험, 서술자의 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윤리적 가치 실천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특히 유교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의 심각성을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반드시 그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함을 피력한다.

먼저 안남(베트남)이라는 공간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자. 안남을 배경으로 하는 고전소설³⁰은 그리 많지 않은데, 『창선감의록』과 『몽옥쌍봉연록』의 경우 문명화된 제후국이자 ‘화(華)’로서의 안남을 표현하고 있다.³¹ 『위현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초반부에 주인공 부친의 8대조가 본래 당나라 사람이며 주인

29 박순임·김창원, 앞의 책(2008), 195쪽.

30 『몽옥쌍봉연록』,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창선감의록』, 『최적전』 등.

31 서정현,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安南國)’의 형상과 그 의미: 〈창선감의록〉·〈소현성록〉·〈완월회맹연〉·〈몽옥쌍봉연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3(2019), 242~250쪽.

공의 부친이 명 태조에 의해 안남왕으로 봉해졌다고 서술함으로써,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이는 안남이라는 명칭이 679년에 당나라가 설치한 안남도호부에서 유래하였고 안남왕이 기원전부터 중국에 의해 책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안남의 의관과 문물이 중국과 같다고 묘사하기도 하고,³² 후토선이 위현을 처음 보았을 때 중국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³³ 따라서 『위현전』의 배경이 되는 안남은 사실상 중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중국 유교 경전의 교리를 중시하는 의식을 곳곳에 표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예가 회령궁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설정하여 그곳의 모임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다. 능허도의 회령궁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고의 영웅들이 모여 제왕의 득실을 총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모임 대목은 ‘충신들의 등장-좌정(坐定)-위현 소개-위현의 스승 결정-충신들의 이름 소개-역신(逆臣)들의 방문과 퇴치-파연(罷宴)’의 순서로 장황하게 서술된다.³⁴ 병사들의 호위 아래 수레와 말을 타고 요란하게 등장한 충신들은 회령궁 대청에 들어와 동벽과 서벽으로 나누어 앉는다. 동벽의 11자리에는 지혜, 도략, 충성, 재주를 겸비한 인물들이 앉고, 서벽의 23자리에는 지혜, 충의, 재주, 용맹, 문무를 겸비한 인물들이 앉는다.³⁵ 이들은 처음 만난 위현을 반갑게 맞이한 뒤 황석공을 스승으로 정해 준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하지 않은 역신 9명³⁶이 찾아오자, 충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32 충남대본, 1b: 의관문물이 동화와 일체라.

33 국한박본, 19a: “…… 그덕 등은 복식이 증원 사람이라 엇지 이고되 왓노뇨”.

34 충남대본은 약 15면[45a~52a], 국한박본은 약 12면[23b~29a]에 걸쳐 나타난다.

35 동벽: 이담, 태공, 황석공, 기신, 귀곡선생, 관중, 장량, 제갈량, 위정, 조보, 유기/서벽: 역목, 남궁팔, 중산보·윤길보, 사마양, 오자서, 오기, 손무, 손빈, 악의, 염파, 한신, 마완·가복, 관공, 장비, 조운, 양호, 이적, 이정, 울지공, 석륵, 악비, 서달, 호대회.

36 범중, 사마의, 순유, 주유, 여몽, 육손, 왕맹, 우문태, 석호.

“우리는 역대의 정통 성군을 섬겨 무도한 자를 멸하고 유덕한 소릴[畝]을 도와
 혹 저의와 서로 접전도 하고 죄[罪]의를 잡아 강산을 발켜[켜] 건곤을 발켜 천운
 을 정하여 국가 주석 원훈이라 이러함무로 빈는 일흠이 만세의 뉴전[紐]거늘 죄
 [罪] 국인이 죄조와 지략[略]이 비록 우리에게 비기다 하나 참역지신이라 불의를 행하
고 학정을 만이 하여스민 후세 소릴이 침 뱃터거날 웃지 우리 연석의 참예하리오.
 …….”³⁷

아홉 사람은 불의와 학정을 일삼은 참역지신(僭逆之臣)이기에 국가의 주석
 (柱石)이자 원훈(元勳)인 자신들과 함께 연회를 즐길 수 없다는 발언이다. 결
 국 위장³⁸이 밖으로 나가 아홉 사람이 생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조목조목 짚으
 며 질책하자, 그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이러한 서사는 몽
 유록(夢遊錄)을 떠올리게 한다. 몽유록에서 몽중세계가 ‘인도(引導) 및 좌정-
 토론-시연(詩宴)’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점과 중국소설이나 『사기(史記)』 등을
 통해 익숙한 역사 인물들을 등장시켜 선악과 충역에 따라 포폄(褒貶)하는 부
 분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해당 인물과 관련한 고사를 길게 나열하고 역사적
 문제의식을 치열하게 표출하는 점 역시 동일하다. 다만 『위현전』은 꿈이라는
 허구적 장치 대신 회령궁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마련해 놓았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영웅소설에 굳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몽유록
 의 구조를 차용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충신과 역신을 대비하여 충성을
 다한 윤리적 행위를 포양하고 반역, 찬탈, 시해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폄하
 하기 위함이다. 작품 속에서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하여 위진을 죽게 만든 갈

37 충남대본, 49b-50a.

38 魏徵(580~643)은 당나라 초기의 공신으로太宗에게 直諫했던 인물이다. 작품에서 안남의
 1대 왕인 위진이 위정의 8대손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위정이 대표가 되어 아홉 명의 역신
 을 물리친 듯하다.

관을 비난함과 동시에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자행한 인물들을 겨냥하여 신랄하게 규탄하는 것이다. 결국 능허도 회령궁은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통해 주인공이 여러 가지를 성취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역신들을 극렬하게 비판하는 곳이기도 하다.

유교 윤리를 중시하는 의식이 나타나는 두 번째 예는 위현이 저승에서 지옥과 극락을 동시에 체험하는 부분이다. 3장 2절의 <표1>에서 살쾅듯이 지옥에 갇힌 죄인들은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어긴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 역사 속의 실존 인물로 나타나기도 한다.³⁹

무슈한 스람이 큰 칼을 쓰고 안저는딴 독한 비암이 원뎡을 모다 썩라니니 피가 흐르니 그 스람이 건디지 못하야 발광하다가 엎더져 궁글거날 세주(위현) 죄목을 뜨르던 녹스 왕 “이는 디역부도로 임군을 죽이고 찬역한 스람이니 ① 한국 왕망과 조” 손권이며 진국 유종과 부견이며 슈노라 왕세충의 무리소이다.” ② 세주 왕 “그러면 엇지 갈관은 그저 둔잇가” 녹스 왕 “갈관은 아직 명이 진치 안니히기로 그저 잇스나 불구의 주바다가 저 스람갓치 히리이다.”⁴⁰

위현이 독사가 피를 빨아 먹는 10번 지옥을 구경하는 대목이다. 인용문의 ①에서 찬역하고 시해한 죄인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조조⁴¹가 눈에 띈다. 사실 조조는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는 전형적인 악인이지만 『삼국지(三國志)』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현전』

39 중국 역사 속 회대의 악녀들의 이름도 노골적으로 서술하여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유교 윤리의 실천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장 2절 <표1>의 11번 지옥 참조.)

40 충남대본, 63a~63b.

41 曹操(150~220)는 後漢 말기에 손권·유비의 연합군에게 대패하였고, 魏나라를 건국하여 황제의 권력과 위세를 행사한 인물이다.

의 작가는 조조를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인용문 ②를 통해 안남을 무력으로 빼앗은 갈관도 목숨이 다하면 이 지옥에 갇혀 고통받으리라 하는 것이 예언된다. 이는 곧 윤리에 반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른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표출한 부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가는 3장 2절의 <표2>에서처럼 1번 극락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의 명신들과 충신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사실 위현이 저승에 간 이유는 전쟁 도구인 벽력퇴를 얻고 부친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다. 그런데 위현이 부친과 감격적인 재회를 하고 벽력퇴를 받는 서사는 아주 짧게 끝나고 지옥과 극락을 구경하는 서사가 매우 길게 이어진다. 또 이미 11개나 되는 지옥을 하나하나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4개의 극락까지 일일이 묘사한다. 작가가 이처럼 지옥과 극락의 서술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저승을 신비롭고 판타지적인 공간으로 구체화하여 독자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고 흥미를 자극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위현전』에서 저승은 천상이 관장하는 장소로 설정되어 있다. 옥황상제는 위진을 염라왕에 임명한 데 그치지 않고 충신, 효자, 열녀 등에게 극락행을 허락한다.⁴² 그렇다면 옥황상제가 표창할 만한 일을 한 인간들을 천상에 두지 않고 굳이 험악하기 짝이 없는 지옥 옆에 극락을 따로 마련하여 살게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는 충간(忠諫)을 극명하게 대

42 충남대본, 64b: 녹스 디왈 “그난 다 충신이니 고요 직 설이며 쥬 소공 광광 제갈양 부 문천 상 악비 제공이니 그 충효를 상제 아람다니 여기서 이 세계에 저 영광을 받게 호노이다”./65a: 녹스 왈 “저 부인은 부모의게 효양하고 가군의게 입절한 부인으로서 상제 명을 받조와 저 영광을 보노이다”./65b~66a: 디왈 “저 남인은 부조 수락[랍]으로 불상한 스름을 마니 구호야 시미 지물 호터 불상한 스람을 구호여시며 저 부인은 남의 첩으로 시부모를 지성으로 공경하고 군모를 예로써 섬겨시며 일가친척을 별[법]으로 디접호여시며 저 부인은 남의 군모 되야 투기 아니호고 소실 은이로 관디하며 가장을 지성으로 섬긴 스람들이니 상테 또한 아람다이 여기서 이곳의 와 저 영화를 받게 호노이다”.

비시켜 복선화음의 이치를 구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곧 저승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며 고통과 행복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느끼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데 윤리의 실천이 매우 중요함을 피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현세의 삶에 따라 사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한박본의 말미를 보면 서술자의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교 윤리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 표출된다.

되져 주고로 난신적조와 국과군망한 스랍이 엇지 읍스리요만은 지어이척하야
 난 가장 기절호도다 흠호다 위현의 명도여 팔 세 동궁의 부왕을 이별호고 모비
 를 모시고 탈신평화하야 주류스방호였시니 엇지 흠호지 안호며 악호다 갈관의
 형스여 일조 궁정의 임군을 죽이고 군신을 거나려 등극형덩하야 토학빅성호였스
 니 엇지 악호지 아니리요 인간선악을 하늘이 응작[당] 살피시니 위현의 심성으
로 엇지 고국을 회복지 못호며 갈관의 악형으로 엇지 일신을 멸망치 아니리요
순천조난 흥호고 역천조난 망호나니 양인 흥망이 엇지된고 회회를 보라.⁴³

밑줄 친 부분의 ‘순천자흥(順天者興) 역천자망(逆天者亡)’은 『맹자(孟子)』 「이루(離婁)」 상편의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이치를 어기는 자는 망한다’는 것은 『위현전』의 주제 의식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하늘의 이치[天理]’는 충효열로 집약되는 유교 윤리를 가리킨다. 비록 낙질인 관계로 결말을 살필 수는 없지만 작품 속에 나타나는 초월적 인물들의 예언이나 위의 인용문 속 서술자의 말을 통해, 위현이 갈관을 처

43 국한박본, 44a~44b.

단하고 안남을 되찾았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현전』은 유교 윤리의 가치를 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를 여러 번에 걸쳐 시사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영웅소설 『위현전』에 대해 고찰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현재 『위현전』의 이본은 충남대본과 국한박본이 전하고 있으나 모두 낙질이다. 충남대본이 국한박본보다 분량이 더 많고 서사 전개가 매끄러워 선본으로 비정할 수 있다.

『위현전』은 공간 구성의 방식이 특징적이며 주제 의식이 매우 뚜렷하다. 작품에 나타난 공간은 ‘천상, 지상, 저승, 수궁, 능허도’ 총 5개이다. 이 중에서 능허도와 저승을 주목할 만하다. 먼저 능허도는 비현실 공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영웅들의 명령이 모이는 장소이다. 안남국의 세자 위현은 8년 동안 능허도에 머물면서 액운을 소멸하고 반역자인 갈관의 위협으로부터 안신한다. 그리고 스승 황석공을 만나 각종 무예와 병법을 익힌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천상, 지옥, 남해 용궁, 안남으로 각각 이동하여 신물 획득, 부친 상봉, 혼인, 복수를 이룬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 능허도는 나머지 4개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중심축이자, 주인공에게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여 결핍을 채우게 하는 중간 다리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크다.

다음으로 저승은 지옥과 극락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충남대본과 국한박본에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지옥을 더한다면 총 12개인데, 이를 통해 다채로운 형벌의 형태와 각양각색의 죄목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4개의 극락을 형상화하여 그곳의 혜택과 극락에 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

사한다. 여기서 지옥과 극락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설정되는데, 저승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 상반된 성격의 공간이 나란히 자리한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위현전』의 주제는 유교 윤리가 혼란한 상황을 현시하여 그 부당성을 폭로하고 반드시 윤리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함을 피력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작가는 사실상 중국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안남을 공간 배경으로 설정하는 데서부터 유교 교리를 중시하는 의식을 보인다. 그리고 공신이나 충신만 참여할 수 있는 능허도 회령궁 모임, 현세에서의 윤리 실천 여부에 따라 죄와 공이 정해지는 지옥과 극락, ‘하늘의 이치를 따르면 흥하고 하늘의 이치를 어기면 망한다’는 서술자의 말을 통해 반복적으로 윤리적 가치를 고수해야 함을 표출한다. 이 과정에서 능허도는 역신을 비판하는 장소로 부각되며, 지옥과 극락은 충신과 역신의 사후 모습이 대비되는 장소로 나타난다.

이처럼 『위현전』은 다채롭고 환상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독자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윤리적 가치의 혼란과 극복’이라는 주제 의식을 뚜렷하게 표출하는 작품이다. 낙질인 관계로 제한적인 선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다. 본고를 통해 『위현전』의 자세한 면모와 가치가 조금이나마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위현전』,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국문 필사본, 1권 1책.

『위현전』, 충남대학교 소장, 국문 필사본, 1권 1책.

2. 논저

김기종, 「조선후기 문학작품의 지옥 형상화와 그 성격」, 『동양고전연구』 66, 2017, 129~162쪽.

박광현, 「한국 불교 전적에 수록된 지옥의 종류와 판화 개괄」, 『불교미술사학』 36, 2023, 171~195쪽.

박순임·김창원, 『장서각 수집 국문고전소설·시가 및 실기류 해제』, 서울: 민속원, 2008.

서정현,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安南國)’의 형상과 그 의미: 〈창선감의록〉·〈소현성록〉·〈완월회맹연〉·〈몽옥쌍봉연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3, 2019, 225~260쪽.

조재현, 「古典小說에 나타나는 幻想界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조재현, 「古典小說에 나타나는 저승계 研究: 閻羅大王의 地獄과 后土夫人의 冥司界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5-2, 2007, 167~193쪽.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40: 월세계~유씨효행록』,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국문초록

본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전소설 『위현전』의 서지 사항과 경개, 공간 구성, 주제 의식을 살핀 연구이다. 『위현전』은 안남국의 세자 위현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작품인데, 능허도와 저승이라는 공간 설정에 있어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먼저 능허도는 주인공이 천상, 저승, 수궁, 지상으로 각각 이동하여 신물(神物) 획득, 부친 상봉, 혼인, 복수를 이루는 공간이다. 또한 능허도 안에 위치한 회령궁을 통해 역신(逆臣)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저승은 지옥과 극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설정되는데, 이를 통해 간신(姦臣)과 충신(忠臣)을 뚜렷하게 대비시킨다. 『위현전』은 작품 배경[안남국을 표방한 중국], 회령궁의 충신 모임[역신 퇴치], 지옥과 극락[고통과 행복의 대비], 서술자의 말[순천자흥(順天者興) 역천자망(逆天者亡)]을 통해 반복적으로 윤리적 가치 실천의 중요성을 표출한다. 이는 곧 무너진 유교 윤리를 복구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투고일 2026. 4. 4.

심사일 2026. 5. 4.

게재 확정일 2026. 5. 26.

주제어(keywords) 위현전(*Wihyeonjeon*), 영웅소설(heroic fiction), 능허도(Neungheodo), 저승(underworld), 안남국(Annamguk)

Abstract

A Study on *Wihyeonjeon*

Lee, Hunam

This study examines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narrative development, spatial structure, and thematic consciousness of *Wihyeonjeon*, a relatively understudied work of classical Korean fiction. The novel recounts the heroic life of Wi Hyeon, the crown prince of Annamguk, and is particularly notable for its distinctive use of the spaces of Neungheodo and the underworld.

Within the narrative, Neungheodo functions as a transitional and transformative space through which the protagonist travels to heaven, the underworld, the underwater palace, and the human world. Through these journeys, Wi Hyeon ultimately acquires divine objects, reunites with his father, marries, and achieves revenge. Furthermore, through Hoeryeonggung, located within Neungheodo, the work delivers a sharp critique of treacherous officials. Meanwhile, the underworld is portrayed as a realm in which hell and paradise coexist, thereby creating a striking contrast between corrupt ministers and loyal subjects.

Through the setting of China represented under the guise of Annamguk, the gathering of loyal subjects in Hoeryeonggung for the purpose of eliminating traitorous officials, the juxtaposition of hell and paradise symbolizing suffering and happiness, and the narrator's statement that "those who follow the principles of Heaven prosper, while those who defy them perish," *Wihyeonjeon* consistent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upholding ethical values. In this respect, the work may be understood as reflecting the author's intention to advocate for the restoration of deteriorating Confucian morality.